

“생의 희망 찾아 한국 땅으로...”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인 환자 2명 초청 무료 의료봉사

“나는 캄보디아인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픈 것을 느꼈어요. 목옆에 혹이 난 것입니 다. 물을 마실 때 마다, 음식을 씹을 때 마다 혹 부분이 아파왔어요. 때마침 마을 인근 센터에 한국에서 온 의료자원봉사자들이 있다가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 다. 이게 무슨 통증일까 했는데 종양이랍 니다. 사실 종양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 다. 그냥 목이 너무 아파요. 놔두면 위험 할 수도 있다 하는데 고향 마을에서 치료 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 다. 치료비도 없거 니와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너 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센터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 의 나라에 가면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 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낯선 나라, 한국어로 가족들을 위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저는 왔습니 다. 두렵 지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캄보디아 환자 오옥 힘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에서 캄보디아인 2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경부(목) 종양 을 앓고 있는 오옥 힘(Ouk Him·31)씨와 탈장 증세를 보이고 있는 키아 카브(Khea Kav·14) 학생이 그들이다. 이들은 6월 9 일 오전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해, 11일 현재 경희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로터스월드는 그 동안 캄보디아 시애틀 에 BWC아동센터를 설립해 현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18~21일 경희의료원 불자회 의료봉사단 이 이곳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중 다 소 상태가 심각한 2명의 환자, 오옥 힘씨 와 키아 카브 학생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 사실, 한국에서는 간단한 수술로도 나올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었지만 캄보 디 아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 없이 방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캄보디아 환자 오옥 힘(왼쪽 사진 가운데)씨와 키아 카브(왼쪽 사진 오른쪽). 이들은 로터스월드 초청으로,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오른쪽 사진은 실승희 스님들과 환자들이 환담을 나누는 모습.



돼 오고 있었던 것.

캄보디아는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데 의료비는 턱없이 비싸 일부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희의료원불자 회는 한국에 돌아온 직후인 4월 말부터 이들을 돕기 위해 환자 2명과 보조자 1명 씩의 한국 방문 경비 일체와 수술비 마린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드디어 이 들 환자들의 한국 방문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입국하자마자 우선 서울 실 천불교전국승가회 사무실로 향했다. BWC아동센터가 없었다면 이런 의료혜 택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도착한 이들은 낯선 외국 환경에 놀랐다. 높은 빌딩도, 복잡한 도시의 모습도 이 들에게는 아직 낯선 이국의 풍경일 뿐이었 다.

특히 오옥 힘씨는 아직 사람들을 경계 하는 눈치였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목 한쪽 부분이 부어 고름이 심해 보이는 오옥 힘씨는 1남 1녀를 둔 어머니 다. 가족들을 버두고, 생업도 잠시 놓고

온 오옥 힘씨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시급한 듯 했다.

키아 카브 소년은 만14세의 나이가 믿 기지 않을 만큼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띄어 보였다. 겉보기에는 크게 아픈 곳이 없어 보이는 키아의 경우, 장기가 제자리 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좌측 서혜부에 종 물이 있어 제거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되 었을 때 성기능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는 소견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면 한창 성장기일 때인데, 키아의 모습은 9~10살이나 되어 보일까 싶었다. 키아의 나이를 듣고 놀라 워하자 로터스월드 민정희 국제교류팀장 이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보 니 성장이 다소 느리다”면서 “키아의 경 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우리나라 아이들 11세용인데도 옷이 클 지경”이라 넌지시 전해준다.

키아는 모습만 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현재 학업도 초등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다. 글을 읽고 쓰게 된지 불과 얼마 되 지 않았다는 키아는 나중에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한다.

6월 10일 이들 캄보디아 환자들과 만 난 실승희 조지·교육위원장 부경 스님 과 사무처장 효진 스님은 환자들에게 관 심을 보이며 “이들이 병이 나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잘 보살피도록 하 겠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캄보디아 BWC아동센터 인근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앞으로 이들은=키아는 6월 11일 현 재 수술 날짜를 잡아 빠른 시일 내에 종 양을 제거할 예정이다. 오옥 힘씨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키아보다 더 까다로운 조직정밀검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

또 하나! 이들의 수술비와 비행기 값, 체류비 등 경비 모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고 한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 다. 또한 로터스월드는 7월에 영어 통역 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도 함께 구하고 있 다. (02)725-4277

글·사진=김강진 기자



“봉사는 마음 다스리는 藥”

서울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에 금요일 아침마다 달려오는 이 사람, 삼삼치 않다. 멧드러진 백발머 리에 걸쭉한 목소리, 호탕한 웃음까지. 주로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이 시설에 이 멋진 남자 봉사자 가 찾아오는 날이면 어떨까 상상도 같지 않다. 씩씩한 말투와 성실한 일하는 마음까지 갖춘 이 사람, 이제 효림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 ‘짱’이다. 이 사람은 김종열(57·사진)씨다.

효림원 봉사자 김종열 씨

복지시설 봉사자들을 살펴보면 남자 봉사자가 참 귀하다. 평일 봉사를 할 수 있는 남자 봉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 다. 김씨 역시도 생업을 갖고 있다. 서울 패션의 중심지 홍대에서 상업에 종사하 고 있는 그는, 새벽 4~5시나 되어야 잠 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잠이 절 박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부터 금요일마다 효림원에 나올 수 있는 까닭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오전 효림원에 오질 않으면 마치 이 를 뒤지 않은 것처럼 찻집하고 꺼림칙 합니다. 이를 안 뉘고도 살 수는 있지만 출가분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기분 이예요.”

김씨가 효림원에서 하는 일은 주로 목 욕봉사다. 남자가 할머니들 목욕봉사하 는지 오해

할 수도 있 지만 김씨 는 목욕탕 안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을 씻겨드릴 수 있도록 욕실까지 데려다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여자 봉사자들이 힘에 부쳐하는 일 을 그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봉사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이 있다고 물었더니, 그는 맨 처음 봉사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의 어느 날을 떠올 렸다.

김씨가 처음 봉사를 왔을 때, 손발이 오그라들어 퍼지지 않는 80대 할머니가 있었다. 목욕을 마친 할머니를 안아서 침상 위에 누이면서 김씨가 “시원하시 죠?”하고 지나가는 말로 물었더니, 모기 만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고마워요”하 고 대답하더라. 그는 그 순간 덕분에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되려 감사한 마음이다.

목욕 봉사뿐만 아니라 효림원에서 일



손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면 그는 오전 시간을 십분 활용해 달려온다. 하지만 이런 김씨도 잠깐 봉사활동을 중단 한 적이 있었다.

2년 전쯤이었지만,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왔다. 하던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몸도 마음도 고단하던 그 때를 다시 넘 긴 것은 한 봉사 도반의 연락을 받고 부 터였다.

“현재 함께 봉사하는 어떤 보살이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병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은거예요. 그 보살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살게 된 삶을 회향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나고요. 그때 효림원 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나 오게 됐어요.”

다시 돌아온 그는 성실한 봉사자의 마 음을 갖는 것, 그것 이상은 바라지 않는 다. 효림원에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들이 보이는 웃음과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 모습 하나면 그는 만족한다고.

“자원봉사는 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약’과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 다 보니 불자들에게도 봉사를 권유하 고 싶습니다. 불자님 마음으로 타인에게 웃으며 다가갈 수 있는 자세, 그것을 저 는 불자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생태, 불교복지의 또 다른 길”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상반기 학술포럼 개최

불교사회복지와 생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주제가 만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생태 불교복지를 만나다’는 이름으로 2008년 상반기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불교사회복지가 양적 팽창에 머물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

를 경청, 새로운 생명력을 갖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생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해 불교사회복지는 어떻게 수용,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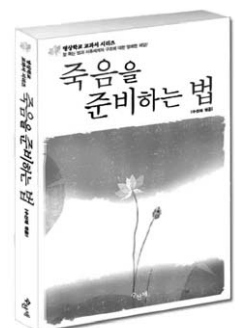
는 자리기도 했다. 인드라광생명공동체 백남식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이번 포럼에서는 우선 김미경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다양한 생태담론 제시와 김정희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불교복지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생명위 기 시대의 불교복지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명상’ 등의 수행방법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사찰 대안교 육 역시 불교사회복지의 지향점이라 는 것을 보여준 장희정 단국대 교수의 ‘사찰 대안교육을 품다’란 주제발표 도 이어졌다.

김강진 기자

책수신재



수신재 역음 · 문화영 평자 · 328쪽 · 값 12,000원

장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수신재 역음 · 366쪽 · 값 12,000원

불정존승대다라니의 부사의한 신통법력의 비밀

중국 오대산에서 1330년 전에 문수대성존께서 불타파 리존자로 하여금 세상에 널리 유통시킨 부사의한 대신 신통법력을 지닌 비밀장다라니를 현세의 죄업중생을 위하여 날날이 밝게 드러내다. 일심정력 기도하시어 체험해 보십시오.

- 불정존승대다라니는 모든 악도를 깨끗하게 하며, 생사와 번뇌를 제거하며 모든 지옥의 고통과 열라왕 세계의 고통과 축생보의 고통을 면하게 하며 지옥을 깨뜨려 선도로 나가게 하느니라.
- 이 다라니를 어떤 사람이 들어 한번이라도 귓전을 스치기만 하면 전생에 지은 일체 지옥의 악업이 모두 소멸되고 청정한 몸을 얻게 되느니라.
- 어떤 사람이 명을 마치려 할때 잠시라도 이 다라니를 염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신구의(身口意)가 청정해져 몸에는 고통이 없고 그 복리를 따라 가는 곳마다 안온할 것이다.
- 잠시라도 이 다라니를 송주하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지옥과 축생과 열라왕의 세계와 아귀의 고통이 파괴되고 소멸되어 남은 고통이 없느니라.
- 이 다라니를 사경하며, 널리 범보시하거나, 받아지녀 독송하거나, 혹은 이다라니를 들고 타인을 위해 범공야하는 이는 모든 악도가 모두 청정해지며 지옥고가 모두 소멸하느니라.
- 목욕재계를 갖고 이 다라니를 송주하되 일심정력으로 1000편을 채우면 단명한 이는 장수하고, 병고(病苦)를 여의게 될 것이며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일체의 고통에서 해탈하느니라.
- 만약 몸살병을 얻은 사람이 이 다라니를 들으면 곧 병이 소멸될 것이며 정도에 왕생하리라.
- 날마다 재계를 갖고 이 다라니를 21편을 일심정력 송주하면 일체 세간의 광대한 공양을 누리게 되고 몸을 버린 뒤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 본문중에서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24-0163-316 (예금주: 김진영)

4·6배판/148쪽/불타파리봉조역/정가 9,000원/화림원출판/·구입문의 : (02) 2272-4398(주·야)